

HRI 체어퍼슨노트
**CHAIRPERSON
NOTE**

2010. 08. 30(月)



경제이슈

6월 미국 주택가격지수 3개월 만에 하락
8월 소비자심리지수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

경영노트

기업 위기 발생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

차이나 리포트

제 3차 중일 경제 고위급 회담

저널브리프

중국의 3대 인구 트렌드

洗心錄

친구야 친구야

이 보고서는 현대그룹 임원들을 위한 경영참고용 자료로서 외부에 공식 배포되는 문서가 아니오니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.

□ 6월 미국 주택가격지수 3개월 만에 하락

- 미국 연방주택금융청(FHFA)가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6월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.3% 하락
 - 주택가격지수 월별 추이 : 3월, 4월, 5월 주택가격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0.2%, 0.8%, 0.4%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나 6월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.3%하락
 - 지역별 주택가격지수 추이 : 지역에 따라 6월 주택가격지수는 큰 편차를 보였으며 전월대비 최고 큰 폭으로 하락한 퍼시픽 지역은 2.1% 하락세를 나타냈고 남동부중앙지역은 최고 1.4% 상승함

- 신규 및 기존 주택 매매 부진은 미국 경기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켜 향후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

□ 8월 소비자심리지수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

-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(CSI)는 8월중 110으로 7월보다 2p 하락하여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
 - 가계소비 : 가계의 소비여력을 나타내는 가계수입전망 CSI가 101로 전월대비 1p 하락하였으며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지출전망 CSI는 112로 전월과 동일
 - 경기 : 현재 경기판단 CSI(107→104)와 향후 경기전망 CSI(115→109)가 전월대비 각각 3p, 6p씩 하락, 미국 경기침체로 인해 향후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
 - 물가 및 금리 수준: 국제 원자재와 식음료 가격 급등으로 가계의 물가수준전망 CSI는 146을 기록하며 전월대비 5p 상승하였으나 금리수준전망 CSI는 136p로 1p 하락

-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가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물가불안도 커지면서 향후 경제상황은 다소 침체될 전망

□ 기업 위기 발생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¹⁾

- BP, 도요타, 골드만삭스는 추락을 세계 최고의 브랜드 경쟁력과 홍보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순간의 위기 대처 실패로 추락을 자초함
 - 이들 업체는 각각 다른 산업의 일류 기업으로서 문제 발생 시점 역시 다르지만 위기 대처에 대한 실수는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음
- 브랜드 이미지의 실추는 기업이 자초하는 측면도 많으며,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함
 - 기업의 잘못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사람들이 당장 기업을 다시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덜 싫어하게 만드는 생각을 가져야 함
 - 또한 기업의 잘못에 관련된 사실 그 자체보다는 사실에 대하는 태도가 기업 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침
- 뉴욕타임즈는 BP, 도요타, 골드만삭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의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제시

< 기업 위기 발생 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>

	내 용
거짓말과 책임 회피	●멕시코만의 석유 유출 사건 당시 BP는 유출량을 하루에 천 배럴로 발표했으나 이후 6만 배럴 이상으로 밝혀지면서 더 큰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었음
시간의 지체	●도요타는 승용차의 기술적 결함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잘못하는 시인하는 인상을 남김
자사 이익에 집중하는 태도	●골드만삭스는 금융위기 발생 직후 세계 각국이 고통을 감수하는 분위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발표하여 금융위기의 주범임에도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을 자초
CEO의 무조건 전면 배치	●사건 발생 후 BP와 도요타의 CEO가 전면에서 나서 사과했으나 오히려 대중은 딱딱한 영국식 억양과 알아듣기 힘든 일본인의 발음으로 인해 소통하기 힘든 기업이라는 인상을 받음
법률 및 홍보 전문가를 맹신	●BP는 법률 및 홍보 전문가의 조언만 듣고 사건의 일부 법률적 책임이 하청업체에 있음을 집중 홍보하다 더 큰 비난을 받음

1) 본 자료는 'In Case of Emergency: What Not to Do(The New York Times, 2010. 8. 22)', '실수 신속 고백이 브랜드 추락 방지(2010. 8. 23)'를 요약 정리함

□ 제 3차 중일 경제 고위급 회담

- 2010년 8월 28일 중일 경제 고위급 회담 북경에서 개최
 - 중국 측에서는 왕치산(王岐山) 부총리가 참석, 일본 측에서는 오카다(岡田 克也) 외무대신이 참석함
 - 올해로 제3회를 맞는 중일 경제 고위급 회담은 중일 양국 간 경제협력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함

- 금번 회담에서 중일 양국은 경제회복에 대한 대응, 양자간 경제협력 및 글로벌 경제협력 등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
 - 금번 대화에서 양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, 녹색경제를 경제 협력의 새로운 영역으로 추가함
 - 첨단 제조업,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, 정보통신, 물류·유통, 식품안전 등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화의 초점을 맞춤
 - 양국은 기술 이전과 농산품 무역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
 - 2012년까지 한·중일 FTA 체결을 위한 관·산·학 공동 연구를 마무리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재정·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

- 세계 2, 3위 경제국인 중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 강화는 글로벌 경제 판도를 새롭게 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
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, 유럽 등 대표적 경제권에서 ‘더블 딥’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반해 중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시현함
 - 또한 양국 간 산업구조가 강한 보완관계에 있어 경제협력 강화로 양국의 산업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

- 중일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응하여 한국도 중국, 일본 등 역내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
 -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 과정에서 형편에 맞는 역할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

□ 중국의 3대 인구 트렌드2)

- 최근 중국에서는 인구와 관련해 노령화, 이민붐, 도시화 등 3대 인구변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음

< 중국의 3대 인구 트렌드 >

트렌드	내 용
노령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(현상) '2009 중국노령사업발전통계 보고서'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매년 5% 이상 증가해 지난해 말 1,899만명에 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또한 아시아개발은행(ADB)은 2050년까지 중국인구의 20%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에 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●(파급효과) 인구고령화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 및 노인인구 부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제성장 둔화: 2015년 이후부터 19~59세 사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제기됨 - 노인인구 부양: 자녀와 떨어져 사는 홀몸노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노인의 50%를 넘어서면서 양로보험 실시 등 노인인구 부양이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음
이민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(현상) '2010년 전 세계 정치와 안전'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엘리트 및 부유층의 투자 이민과 기술이민이 늘어나고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美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투자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 4,218명 가운데 1,979명이 중국인이었음 - 또한 해외 유학에 나선 학생수가 30만명에 육박하면서 해외 유학생 규모에서도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●(파급효과) 해외 이민·유학의 증가로 금전 및 인재 유출이 우려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부유출: 엘리트 및 부유층의 이민이 늘어나면서 이들 소비에 따른 경제 부흥 효과가 사라질 수 있음 - 인재 유실: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 정착하는 인구도 늘어나 장기적으로 인재 유실 위험이 있음
도시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(현상)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국의 도시화율이 1949년 10.6%에서 2009년 46.59%로 확대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당국의 제12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5년경에는 중국의 도시 인구가 농촌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●(파급효과) 도시화에 따른 서비스 산업 수요 증가가 예상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전체 도시화율은 아직 선진국 수준(85%)보다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한동안 도시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- 중국당국은 도시화를 통해 내수확대의 잠재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- 이에 따라 도시민들의 서비스 니즈가 증가하고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

2) “빨라지는 고령화...인구 프리미엄 ‘옛말’”(한경Business 2010.8.11) 참조

□ 친구야, 친구야

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. 사회 집단 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. 하지만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쉽지 않다. 인간관계는 각박해지고 있다.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. 스티브 도나휴는 <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>이라는 책에서 사하라 사막에서 꼭 오아시스에 멈추어 쉬어야 할 이유로 “첫째,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. 둘째,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. 셋째,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.” 라고 했다. 뜨거운 사막에서와 같이 각박한 인간관계에서도 오아시스와 같은 장소가 필요하다.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정일 것이다. 이정하의 “우리 사는 동안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.

『우정은

우리 삶에 오아시스같은 것입니다.

참된 친구가 없는 것이야말로 비참한 고독이며

그러한 세계는 황무지입니다.

그러나 진실한 벗이란

그 많은 친구,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.

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고통을 나누어 가지며

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런 벗이어야

참다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.』

이글거리는 태양과 같은 역경이 즐비한 인생의 사막길에서 ‘우정’은 실제의 사막길에서의 오아시스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?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는 가까운 친구를 생각한다. 친구를 생각하는 자체만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덜 외롭다. 친구를 직접 만나고 얘기까지 나누면 그 편안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다. 하지만 문제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는 평생에 몇 명 만들기도 어려운 참다운 친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. 어렵지만 참된 친구와의 우정을 가꾸어 나가자. 더 어렵지만, 없으면 만들어 보자.

겸손한 자만이 다스릴 것이요, 애써 일하는 자만이 가질 것이다.

- 랄프 왈도 에머슨(1803~1882) : 미국의 시인, 사상가 -